

배포 일시	2023. 3. 3.(금)			
담당 부서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익 (044-201-3469)
		담당자	사무관	안종태 (044-201-3471)
보도일시	2023년 3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중남미 3개국 협력 교두보 - 27일부터 5일간 파라과이 · 콜롬비아 · 가이아나 찾아 협력방안 논의 -

-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단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 이하 사절단)은 2월 27일부터 5일간 중남미 3개국(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협력사절단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단의 일환으로 세계박람회 기구 회원국인 중남미 3개국을 대상으로 파견되었으며,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토지개혁 관련하여 한국정부에게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사절단 파견이 결정되었다.
- 먼저, 2월 27일부터 이틀간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 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에드가르 에스테체(Edgar Esteche) 농업연구원(IPTA)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Mario Adbo)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 개발사업(KOPIA) 함께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글로리아 파레데스(Gloria Padres)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Ariel Simbron) 파라과리(Paraguari)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 협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Christina Goralewski)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경제수 시범조림)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양국 간의 산림 협력위원회를 재개하였고, 향후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 한편, 사절단은 라울 실베로(Raúl Silvero)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 사절단은 2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 다음으로, 사절단은 3월 1일부터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 첫째 날인 3월 1일(수)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Cecilia López Montaña)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Juan Castro)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IGAC)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 몬타노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콜롬비아 방문 둘째날인 3월 2일(목), 사절단은 「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였다.

- 포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국가기획처(DNP)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 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하였다.

-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하여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월 3일(금) 가이아나를 방문한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기로 한 바 있으며,

-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Zulfikar Mustapha)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REDD+ *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GGGI 등)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REDD+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Candida Daniels)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 국장과 양국 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게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담당 부서 <총괄>	외교부 공보홍보담당관	책임자	심의관	최준호 (02-2100-7420)
		담당자	사무관	양미란 (02-2100-7436)
<사절단>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익 (044-201-3469)
		담당자	사무관	안종태 (044-201-3471)
<사절단>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황용 (063-238-1110)
		담당자	지도관	박종윤 (063-238-1127)
<사절단>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실 장	김진아 (042-481-4176)
		담당자	사무관	민병산 (042-481-4081)



한-파라과이 농업-토지 협력강화 포럼, 한국의 디지털트윈 정책 및 활용 사례
(발표자: 국토부 오성익 과장, 2023.02.28.)



파라과이 지적청장 면담 및 협력강화 방안 논의후 파라과이 언론사와 인터뷰
(고호석 과장(통역)-오성익 과장 - 현지 언론, 2023.02.28.)



중남미 농업-토지 협력 사절단 환영식에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오성익 과장이
콜롬비아 농업부 장관에게 The Korea Story(오원철 경제수석)도서를 선물하고 있다
(콜롬비아 외교부, 2023.03.01.)



한-콜롬비아 농업-토지 협력강화 포럼, 토지개혁과 공간정보 분야 협력방안 발표
(발표자: 국토부 오성익 과장, 2023.03.02.)



콜롬비아 국가기획청 방문 / 안토니오 아벤다노 국장과 콜롬비아 농지개혁을 위한
한-콜롬비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023.3.3)